

〈일반논문〉

‘암살’에서 ‘의거’로 - 20세기 전반 중국의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보도를 중심으로 - *

孫成旭 **

〈목차〉

- I. 들어가며
- II. 한국 志士의 기원: 안중근
- III. 한국 志士의 浮彫와 日皇 不敬 보도: 이봉창
- IV. 志士 형상의 공고화
- V. 나가며

[국문초록]

20세기 전반 한국의 항일투쟁에서 ‘암살’은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특히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의 활동은 중국인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중국인의 마음에 지사로 자리 잡으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1992년 한중수교 이래 한중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 항일항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세기 전반 한중관계는 여러 차례의 질곡이 있었고, 중국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도 시기에 따라 달랐다. 특히 ‘암살’이라는 ‘비합법적’인 방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복잡했다. 중국의 국내외 정치 상황에 따라 인식차가 발생했다. 20세

* 이 논문은 2023~2024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창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기 전반 복잡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의 지사 형상이 형성되었으며, 1930년대 중국 항일전쟁에서 세 인물은 연결되어 언급되었고 韓人 지사의 형상을 상호 강화시켰다.

□ 주제어

암살, 의거, 지사,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I. 들어가며

암살은 인류 역사상 오래된 정치 투쟁 방식이자,¹⁾ 20세기 전반 한국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한 투쟁방식 중 하나였다. 비합법적 행위이기에 줄곧 비판받아 왔지만, 불의의 권력에 저항하는 의지가 높게 평가받기도 했다. 특히 ‘난세’에 등장하는 ‘의로운’ 암살은 오랫동안 회자되고 기억되었다. 사마천도 『사기』 「자객열전」에서 춘추전국 시대 암살을 시도한 曹沫·專諸·聶政·荊軻 이야기를 다뤘다. 그는 자객을 역사에 남길만한 이야기로 봤고, “그 의거가 성공하기도 하였고 성공 못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그 뜻을 세움이 환하여 그 뜻을 속이지 않았으니, 이름이 후세에 드리운 것이 어찌 허망하겠는가!”²⁾ 라며 대의를 높이 평가했다. 암살이 의거로서 널리 인정받기 쉽지 않았지만, ‘난세’에 암살은 분명 유효한 저항 방법 중

1) 존 위딩턴, 장기현 옮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암살의 역사』, 레드리버, 2022.

2) 사마천 지음, 장세후 옮김, 『사기열전』 2, 연암서가, 2017, 67~68쪽.

하나였다.

청말 중국에는 암살풍조가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제정치를 무너뜨리자는 혁명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국가체제의 근간을 바꾸고자 하던 급변의 시대에 암살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이익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개혁 앞에 대립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암살이 빈번해졌다. '암살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³⁾ 청이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졌지만, 군벌의 난립 등 정치적 혼란과 아나키즘의 영향으로 암살활동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⁴⁾

중국인들에게 한국 독립운동 志士의 암살활동 역시 생소한 투쟁방식이 아니었다. 세계 곳곳에서 탄압받는 약소국의 지사들이 암살을 시도했고, 이러한 소식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속속 전해졌다.⁵⁾ 중국만이 '암살시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암살은 그 대의와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쉽지 않았다. 약자의 비합법적 폭력이라 하더라도, 암살은 국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외교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핍박받는 약소민족을 동정하고 그 저항에 공감하면서도 암살행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은 불굴의 독립 의지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중국인의 마음속에 志士⁶⁾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중국인

3) 魏瑩, 「清末民初(1895-1916)暗殺風潮研究」, 陝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4) 20세기 전반 중국의 주요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經盛鴻, 『民國暗殺要案』, 江蘇古籍出版社, 1996; 王培·金人, 『民國政治謀殺案』, 群眾出版社, 2004 참고.
 5) 20세기 전반 해외 암살 관련 기사는 중국 신문과 잡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時評:俄國芬蘭總督之遇害」, 『東方雜誌』, 1904年 第6期; 「芬蘭議會議長遇害」, 『時報』, 1905. 2. 8.; 「記美國新總統威爾遜被人敲詐事」, 『亞細亞日報』, 1913. 2. 25.; 「法國:圖殺法總統之凶犯已判決」, 『國際公報』, 1923年 第8期; 「波蘭總統慘遭毒手」, 『大公報』, 1922.12.18.; 「法總統昨晨逝」, 『大公報』, 1932.5.8.
 6) 본고에서는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을 칭하는 데 있어 義士나 烈士가 아닌 志士를 사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志士를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 한중 우호 교류의 상징이자, 항일 공동항전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는 세 지사가 누구나 공감할 대의명분이 있었고, 사람들을 감복시켜서만은 아니었다. 20세기 전반 복잡한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지사 형상이 형성되었으며, 1930년대 중국 항일전쟁에서 세 인물은 연결되어 언급되면서 韓人 지사의 형상을 상호 강화시켰다. 세 지사의 활동과 중국 내 인식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나,⁷⁾ 대부분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각각의 사안을 연결하여, 20세기 전반 한국 독립지사의 암살활동이 중국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중국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이 어떻게 ‘기억된 의거’의 주역으로서 지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한국 독립운동에

다하여 싸운 사람”으로, 烈士를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으로, 義士는 “의로운 지사”로 정의하고 있다. 의미상 크게 차이는 없으나, 2005년 국가보훈처가 내놓은 “의사, 열사의 정의에 대한 보훈처의 견해”에서는 義士를 “성패에 관계 없이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써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 사람”으로, 烈士는 “직접적인 행동 대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자결로써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보인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로 호칭한다. 이러한 통례를 따르지 않고 志士를 택한 것은 당시 중국 언론에서 이들을 애국지사로 평하는 표현으로 義士와 烈士를 쓴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志士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義士와 烈士가 순국 후 칭해지기에 암살 시도에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보도에서 志士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본고는 사건의 발발에서 사후 평가 부분까지 다루기에 志士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7)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나 한국학계에서의 최근 연구논저로는 장세운, 「20세기 초반 주요 중국 언론의 한국 독립운동 인식 - 홍콩 華字日報·天津 大公報·上海時報·申報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2013; 손영홍, 「안중근의거가 중국의 반제민족운동에 미친 영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2009; 최봉룡,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반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9, 2020;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 박혜진·박설매, 「중국에서 윤봉길 사건의 주제의식 변천 연구」, 『한국문화논총』 91, 2022; 손성욱, 「1930년대 중국에서의 윤봉길 이미지 변화 양상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2023 등이 있다.

끼친 영향을 긴 호흡으로 중국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기사를 통해 되짚어 보
고자 한다.⁸⁾

II. 한국 志士의 기원 : 안중근

러일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부터 전쟁 초기까지 중국에서는 '聯日拒俄' 여론이 팽배했다. 당시 중국은 求亡圖存의 위기 속에서 대대적 개혁과 그 방향으로 '立憲'의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로, 많은 중국 지식인은 이 전쟁을 입헌정치와 전제정치의 대결이자 황인종과 백인종의 전쟁으로 여겼고,⁹⁾ 의화단사건 이후 러시아가 동청철도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철수를 철회하지 않고 만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반

8)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 2022년 延安大學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張利芬의 「近代在華韓人的反日暗殺活動(1905-1945)」은 韓人の 암살활동을 1919년 이전(1905년 <을사늑약> 이후 3.1운동 이전까지), 1919년에서 1931년, 1931년 이후 시기로 나눠서 다뤘다. 시기별 특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 독립운동 지사의 암살활동을 오늘날 테러와 다르다고 강조하고 그 영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암살활동은 침략자들을 자극하고 엄혹한 상황을 조성한다면서 혁명 활동의 유효한 확대에는 불리하다고 평가하면서 암살을 변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전반 한국 독립지사의 암살활동의 개괄적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20세기 전반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지사에게도 온전히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의 활동은 한중 공동합작에 끼친 영향에서 본다면 '不利'보다 '利'가 더 컸다.

9) 劉學照·方大倫, 「清末民初中國人對日觀的演變」, 『近代史研究』 1989-6, pp.137-139; 俞祖華·趙慧峰, 「略論近代中國人的日本觀」, 『廣東社會科學』 2007-5, pp.142-143; 韓小林, 「論近代中國從“輕日”到“師日”的轉變」, 『安徽史學』 2004-3, p.42; 陶海洋, 「《東方雜誌》中“黃禍論”述評研究」,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6-3.

감이 컸다.

하지만 전쟁이 지날수록 일본의 야욕이 드러났고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일 정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해 한국을 보호국화 했고, 중국 동북 지역 진출의 야욕을 드러냈다. 1909년 일본 전 총리이자 초대 조선통감이었던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동북 철도 문제, 러일전쟁 전후 처리 등을 두고 러시아와 논의하기 위해 만주를 시찰하고 하얼빈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에 주목한 중국 언론은 거의 없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토의 만주행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보도했으며, 이토도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를 강조했다. 게다가 8월 26일 청정부가 「欽定憲法大綱」을 발표하면서 중국 내부의 여론은 입헌 문제에 집중되었다.¹⁰⁾ 이토의 죽음 이전 그의 행적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한 것은 일본인이 창간한 『順天時報』, 『盛京時報』 정도였다.

1909년 10월 6일,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에 의해 격살당했다. 중국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다.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¹¹⁾ 「을사늑약」 이후 을사오적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암살활동이 있었지만, 대대적 보도가 쏟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갑신정변과 청일전쟁에서 보여준 이토 히로부미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보도가 쏟아져야 할 거 같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중국인이 청일전쟁 이후 무술변법, 청말 신정을 거치며 메이저 유신을 성공한 개혁 모델로 여겼다. 메이저 유신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토 역시 정치, 외교 개혁 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10) 金芳, 「伊藤博文在華形象初探(1880-1930)」, 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p.40.

11) 『民吁日報』, 『申報』, 『時報』, 『神州日報』, 『新聞報』, 『正宗愛國報』, 『順天日報』, 『大公報』, 『中外實報』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관련 기사를 정리한 徐明勳 主編, 『中國人心目中的安重根』, 黑龍江教育出版社, 20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중국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참조.

받았다.¹²⁾ 이는 이토가 격살당한 직후 신문보도에 그대로 드러난다. 10월 28일 『申報』에 실린 「이토 피격 소식을 들은 소감(聞伊藤被刺感言)」 사설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토는 일찍이 조선은 만주로 건너갈 다리라고 했다. 오늘 기초가 이미 마련되었다. 가을 하늘이 엄숙하고 바람이 높이 불며, 나이가 들어도 정당한 영웅은 단기로 만주에 쳐들어갔다. 이토는 의지가 가득 차고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토가 조선을 노린 일은 이루어졌지만, 만주의 일은 막 시작한 것이다. 의지는 가득했으나 뜻을 이루지도 못했고 애써 힘쓰고 있을 때 만년에 이 얼어붙은 먼 곳에서 뜻밖에 눈을 감게 되었다. 그는 한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웅대한 뜻을 펼치게 되었으면 우리 중국의 장백산과 흑룡강 사이에 또 어떠한 풍운을 일으키고 어떠한 영상을 연출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이 그에게 수명을 더 주지 않아 한순간에 앉아서 암살당의 일격에 목숨을 잃고 한을 품으며 죽었다. 이것은 극히 슬프고 분개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¹³⁾

사설의 필자는 이토의 만주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은 중국을 향해 있었다. 중국이 경계하고 비판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

12) 안중근 의거 이전 중국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형상 변화에 관해서는 金芳, 「伊藤博文在華形象初探(1880-1930)」의 참조.

13) 「聞伊藤被刺感言」, 『申報』, 1909.10.28.(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중국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67쪽) 伊藤嘗謂高麗爲渡滿之橋, 今者基礎既立, 秋肅風高, 矍鑠英雄, 單騎直入, 伊藤可謂志滿意得也矣. 然在伊氏觀之, 高麗之事雖已告成, 滿洲之事正在開始, 蓋猶不以此爲志滿意得之時, 而以是爲慘淡經營之日, 所以冰雪之地, 垂暮之年, 萬里悠悠, 飄然竟往, 此阿瞞所謂一世之雄也. 假使壯志得伸, 我不知白山黑水間, 又將煽起若何之風雲, 幻出若何之影相, 而乃天下假年, 俄頃之間, 坐喪於暗殺黨之一擊, 使之飲恨以歿, 豈非至可悲慨之事哉!

지만 일국의 충신으로 국익을 위해 걸출한 공적을 세운 이토를 영웅으로 평했으며, 이는 근대 전환기라는 ‘난세’에 안정을 가져다줄 영웅을 갈구하는 당시 팽배한 영웅주의 풍조¹⁴⁾ 와도 맞물려 있었다. 이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저자는 “그를 치는 것은 韓人의 마음을 통쾌하게 할 수 있지만 韓人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며 암살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입헌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英華(英斂之)는 10월 28일 『大公報』에 실은 「언론: 이토공 피격 소식을 들은 소감(言論: 聞伊藤公被刺有感)」라는 사설에서 원한을 갚고 국치를 씻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토를 죽여도 한국의 멸망을 구할 수 없고, 이토를 죽이지 않는다 하여 한국의 흥기를 반드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토의 생사는 한국의 흥망과는 원래 관계가 없다. 이런 암살주의를 품고 있는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¹⁵⁾ 며 암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혁명파는 입헌파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입헌파가 청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변혁을 모색했다면, 혁명파는 排滿을 내세우며 청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 1905년 9월 24일 입헌 준비를 위해 서양 각국으로 시찰을 떠날 청 대신 載澤, 端方, 紹英, 戴鴻慈, 徐世昌의 암살을 시도했다 죽은 吳樾은 유작인 『暗殺時代』에서 “무릇 排滿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암살이요, 하나는 혁명이다. 암살은 원인이요, 혁명은 결과이다. 암살은 개인으로 가능하지만, 혁명은 우리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 今日의 시대는 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암살의 시대이다.”¹⁶⁾ 라고 강조했다. 전근대 유희

14) 청말 민초의 영웅주의에 관해서는 李奇志, 『清末民初思想和文學中的“英雄”話語』, 湖北教育出版社, 2006 참조.

15) 英華, 「言論: 聞伊藤公被刺有感」, 『大公報』 1909.10.2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중국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296쪽) 殺一伊藤, 不足以救韓國之亡, 不殺伊藤, 亦未必能阻韓國之興. 伊藤之生死, 與韓國之興亡, 本無關係. 吾不知持此暗殺主義者, 其目的果何在也.

16) 張枬·王忍之 編,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第2卷 下冊, 生活·讀書·新知

정신, 새로 유입된 사회진화론과 아나키즘의 영향도 있었지만, 합법적 방법으로 ‘혁명’은 거의 불가능했기에 청말 혁명파들의 주도로 암살이 성행했다.¹⁷⁾

1909년 10월 29일 대표적인 혁명파 신문으로 청정부와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비판했던 『民吁日報』에 실린 사설 「이토 감국 암살안을 논함 2(論伊藤監國暗殺案 二)」는 안중근 의거를 종족의 정치혁명으로 보며 “자유를 바라고 평등을 선망하며 천부인권을 회복하고 인도주의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정치 암살이라고 평하며, “안중근은 한 사람의 손으로 잔학함을 제거하고 탕제와 무제가 넘어뜨린 정치를 행사할 수 있는데, 비록 눈앞에 당장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달성한 것으로 그의 후인에게 경고하는데 충분하다”고 높이 평가했고, “멸망한 나라가 아주 많지만, 원한 품고 고통을 참으며 일격을 생각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자는 극히 적다. 이 정치 암살은 韓人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의 좋은 평판을 독차지하게 했다.”고 봤다.¹⁸⁾

입헌파와 혁명파는 암살이라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는 보통 중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909년 12월 28일 泉漳公學의 ‘遊藝會’가 열렸다. 泉漳公學은 福建 泉州 同安과 漳州 龍溪·海澄의 상인들이 출자하여 만든 泉漳會館이 1907년 세운 소학교로 근대식 학제를 채택했다. 이번에 열린 游藝會는 國文, 地理, 會歌, 英文, 習序, 體操, 筆算, 化學, 軍樂, 圖畫, 樂羣歌, 珠算, 歷史, 餘興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프로그램은 전통적 학문체계와는 다른 근대

三聯書店, 1963, 715쪽. “夫排滿之道有二: 一曰暗殺, 一曰革命. 暗殺爲因, 革命爲果. 暗殺雖個人而可爲. 革命非群力卽不效. 今日之時代, 非革命之時代, 實暗殺之時代也.”

17) 黃滔, 「晚清革命派暗殺風潮興起之原因初探」, 『探索與爭鳴』, 2013-6.

18) 「論伊藤監國暗殺案(二)」, 『民吁日報』, 1909.10.29.

교육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교과목별로 진행된 후 마지막에 이루어진 비교과 ‘오락’ 행사인 餘興이다. 학생들은 “伊籐被刺”을 주제로 공연했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손님 300여 명은 모두 즐거워하며 파했다.¹⁹⁾ 이에 대해 『申報』에서만 짧게 소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토를 비극적 영웅으로 연출했는지, 애국지사 안중근을 내세웠는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다. 연극을 본 후 관객들이 이토와 안중근에 대해 입헌파와 혁명파의 시각차처럼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다. 관객들이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토의 죽음이 소학교의 학예회 연극으로 올라올 정도로 중국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입헌파와 혁명파의 입장 차와 같이 안중근의 저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관련 보도가 이어질수록 안중근에 대한 동정과 지사 형상이 중국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특히 재판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화를 향한 결의와 죽음 앞에 의연한 모습이 중국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大公報』는 1910년 2월 9일 안중근이 재판장에서 자백한 내용을 장문으로 게재했다.²⁰⁾ 2월 23~26일에 걸쳐 안중근의 진술서를 전재했다.²¹⁾ 3월 25일에는 안중근이 임종 직전 빌렘 신부에게 참회한 기록을 전했다.²²⁾ 『申報』, 『時報』, 『新州日報』 등도 『大公報』처럼 상세한 기록을 전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진술하고 동양평화론을 주장한 안중근의 육성이 전해지는 듯했다. 대부분 신문은 재판 과정에 있어 시비를 논하는 평을 하지 않았지만, 뉴스 자체가 안중근이라는 인물과 ‘암

19) 「泉漳公學開遊藝會」, 『申報』, 1909.1.11.

20) 「東三省」‘安重根之供狀’, 『大公報』 1910.2.19., 第5版.

21) 「東三省：詳誌安重根之供詞」, 『大公報』 1910.2.23., 第5版; 「東三省：續誌安重根之供詞」, 『大公報』 1910.2.24., 第5版; 「東三省：再續安重根之供詞」, 『大公報』 1910.2.25., 第5版; 「東三省：三續安重根之供詞」, 『大公報』 1910.2.26., 第5版.

22) 「安重根終前之懺悔記」, 『大公報』 1910.3.25., 第9版.

살’의 대의를 두드러지게 했다.

중국에서 안중근 재판 관련 보도는 안중근을 지사이자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안중근이 사형을 당한 후 몇 달 뒤 『輿論時事報圖畫』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奉天 小東門의 한 사진관에서 안중근의 초상 사진을 판매했는데 중국인이며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비싼 값에 팔고자 물건을 거두어들였다는 내용이었다. 時勢가 영웅을 만들며, 안중근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영웅의 뜻을 굳히지 않고 목숨을 바쳤다면, 안중근의 사진이 전 세계에 전해져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단평을 덧붙였다.²³⁾ 안중근 의거에 있어 암살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더 이상 부각되지 않았다.

III. 한국 志士의 浮彫와 日皇 不敬 보도 : 이봉창

1910년대 중반 21개조 요구 문제가 불거졌고, 1919년 5.4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됐다. 5.4운동을 이끈 陳獨秀는 3.1운동에 대해 “위대하고 절실하고 비장하며, 또한 명료하고 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民意로 하고 무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²⁴⁾ 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비폭력 운동을 높게 평가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압과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었다. 그는 1915년 『青年雜誌』 창간호에 발표한 「삼가 청년에게 고함(敬告青年)」라는 글에서 중국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

23) 「安重根肖像之價值」, 『輿論時事報圖畫』 第7卷 第17期, 1910.

24)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조선독립운동 감상(朝鮮獨立運動感想)」, 『천두슈 사상선집』, 산지니, 2017, 118쪽.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는 응당 악한 사회와 싸워 이겨야지 악한 사회에 정복당해서는 안 되며, 악한 사회를 뛰어넘어 모험과 고투의 대열로 들어가야지 악한 사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 도피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 호라! 구라파의 철기가 너희 집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높은 곳에 누워서 흰 구름은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원컨대 청년들은 공자나 목자가 될 지언정 巢父나 許翕가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원컨대 청년들은 톨스토이나 타고르보다는 콜롬버스나 안중근이 되기를 바란다!²⁵⁾

악에 맞서는데 있어 폭력과 비폭력을 따지기 이전 숨어들지 말고 공자, 목자, 콜롬버스, 안중근처럼 행동에 나서길 요구했다. 안중근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제시됐다.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호소력 있는 인물이었다.

3.1운동 이후 암살활동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 여러 한국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특히 의열단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암살활동은 미수나 실패에 그쳤다. 안중근의 이토 저격과 같이 크게 주목받은 사건은 없었다. 국내외에서 벌어진 암살 계획 및 시행, 암살 단체의 조직 등에 관한 소식이 간헐적으로 보도될 뿐이었다.²⁶⁾ 중국 신문은 일반적으로 사실을 보도

25) 천두슈, 「삼가 청년에게 고함(敬告青年)」, 『천두슈 사상 선집』, 60쪽.

26) 「朝鮮暗殺事件之判決」, 『亞細亞日報』, 1912.10.25.; 「韓人謀刺朝鮮總督之續報」, 『國民公報』, 1919.9.8.; 「韓人謀刺新總督詳報」, 『晨報』, 1919.9.8.; 「朝鮮人又炸朝鮮總督」, 『晨報』, 1920.7.1.; 「朝鮮暗殺團與過激派之聯絡」, 『中美日報』, 1920.8.5.; 「朝鮮暗殺俱樂部成立」, 『益世報』, 1920.9.20.; 「日本赴美代表之恐慌」, 『晨報』, 1921.10.1.; 「韓人謀刺日代表續誌」, 『新社會報』, 1921.10.18.; 「朝鮮總督被刺說」, 『益世報』, 1921.10.9.; 「新關碼頭發生暗殺案」, 『申報』, 1922.3.29.; 「新關碼頭暗殺案續誌」, 『申報』, 1922.3.30.; 「新關碼頭暗殺案三誌」, 『申報』, 1922.3.31.; 「新關碼頭暗殺案四誌」, 『申報』, 1922.4.1.; 「謀刺田中之韓人越獄脫逃」, 『申報』, 1922.5.3.; 「特約電」, 『大公報』, 1922.3.31.; 「田中大

하는 데 그쳤다. 암살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이나 조선에서 일어난 암살 활동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1910~20년대 중국에서 비교적 큰 주목을 받은 한국 항일 암살활동은 1922년 3월 28일 상해 황포탄에서 오성륜, 김익상, 이종암이 일본 軍事參議官 田中義一 암살을 시도한 것이었다. 田中義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독 레오나드 우드(Leonard Wood)을 만나고 3월 28일 상해에 도착했다. 그가 배에서 내려 차를 타러 가는 틈을 타 오성륜이 총을 쏘다. 불행히도 지나가 옆에 있던 미국인 스나이더(W. J. Snyder)의 부인이 죽고 지나가는 급히 차를 타고 도망쳤으며, 김익상과 이종암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오성륜은 5월 2일 일본 영사관 감옥에서 탈옥했지만, 김익상은 재판을 받고 21년간 옥고를 치렀다.²⁷⁾

이 사건은 상해의 『申報』, 『民國日報』, 『新聞報』, 『時報』 등 여러 신문이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천진의 『大公報』 역시 상해에서 전해오는 보도를 활용하여 관련 소식을 전했다. 전반적으로 이들 신문의 기사는 이번 사건의 목적을 비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를 교란하려는 것이 아니라, 韓人의 독립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²⁸⁾ 무고한 민간인이 죽

將在滬被刺之詳誌, 『大公報』, 1922.4.1.; 「上海新關碼頭暗殺案詳紀」, 『大公報』, 1922.4.2.; 「高麗臨時政府否認暗殺田中」, 『晨報』, 1922.4.4.; 「韓政府對暗殺田中案之聲明」, 『益世報』, 1922.4.4.; 「韓義烈團復國運動之失敗」, 『益世報』, 1923.4.15.; 「韓人謀刺日攝政宮」, 『益世報』, 1924.1.9.; 「韓烈士刺齋藤總督」, 『益世報』, 1926.5.7.; 「韓人刺殺案更審」, 『新晨報』, 1930.1.13.; 「新關碼頭發生暗殺案」, 『申報』, 1922.3.29.; 「新關碼頭暗殺案續誌」, 『申報』, 1922.3.30.; 「新關碼頭暗殺案三誌」, 『申報』, 1922.3.31.; 「新關碼頭暗殺案四誌」, 『申報』, 1922.4.1.; 「謀刺田中之韓人越獄脫逃」, 『申報』, 1922.5.3. 등.

27) 의열단의 田中義一 암살 시도에 관한 구체적 경위에 관해서는 이명화, 「식민지 청년 김익상의 삶과 의거 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116~136쪽 참고.

28) 「新關碼頭暗殺案三誌」, 『申報』, 1922.3.31.; 「謀刺田中大之韓人越獄再誌」, 『新

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한국 항일 암살활동이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다시 주목받은 것은 이봉창에 의해서다.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은 도쿄 교외에서 열린 관병식에 참가한 후 돌아가던 히로히토 천황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중국에서는 9.18만주사변으로 반일 감정이 심화되고, 만보산사건과 화교배척사건으로 반한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다. 한국인을 일본인의 앞잡이라며 몰아붙이는 비판이 많았다.²⁹⁾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청년에 의해 일본 천황 암살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천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으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며 중국 내 여파가 컸다. 『民國日報』, 『申報』, 『時報』, 『時事新報』, 『中央日報』, 『大公報』 등 전국 각지의 신문이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주로 통신사로부터 받은 소식을 정리해 전하는 사실 위주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의거 다음 날인 1월 9일 『申報』의 첫 보도 기사는 「한국 지사 일황 저격 실패(韓國志士狙擊日皇未成)」였다. 이 기사는 부제로 ‘투척한 폭탄은 수행원의 마차에 명중’, ‘범인 李鳳章 현장에서 체포’, ‘犬養毅 내각 총사퇴하였으나 유임 결정’을 달았다.³⁰⁾ 기사 내용은 ‘8일, 동경 로이터통신 電’, ‘8일 동경, 國民

聞報』, 1922.4.21.

29) 손승희, 「萬寶山事件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 2007, 247~257쪽.

30) 한시준은 이봉창의 日皇을 향한 폭탄 투척에 대한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는데, 중국 신문기사에 ‘未成’이나 ‘未中’과 같은 제목이 들어간 것은 일황을 처단하지 못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봤다. (156쪽) 이에 동의하면서도 각각의 기사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申報』, 『時報』, 『時事新報』, 『大公報』 등 사건의 경위를 보도한 기사의 경우 ‘未成’이나 ‘未中’라는 제목을 붙였으나,

社電', '8일 동경, 電通社電'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봉창을 志士로 표현한 기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³¹⁾ 『申報』는 의거 관련 첫 기사였던 1월 9일 기사의 제목으로 「한국 지사 일황 저격 실패(韓國志士狙擊日皇未成)」는 의미심장하다. 암살자를 자객이 아닌 志士로 표현했다. 이봉창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판단이 들어간 것이다. 통신사 기사를 정리한 수준의 기사였고, 일본 통신사인 國民社(國民通信社)와 電通社(電報通信社)로부터 기사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뽑은 제목에서 이봉창을 志士로 표현하며 자신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³²⁾ 1932년 1월 11일자 『中央日報』에 게재된 「한국 지사의 일황 저격 이후(韓志士狙擊日皇后)」도 '志士'로 표현해 이번 사건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번 일본의 침략은 동북 점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착착 군대를 關內로 보내며 국제공리를 무시하였다. 한 세대가 분명해질 때 갑자기 벽력같은 일성이 있었으니, 韓國志士 이봉창이 단신으로 들어가 두 개의 수류탄으로 만군의 호위를 받는 日皇을 저격한 것이다. 비록 副車에 잘못 맞아 그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는 큰 물결을 타고 소리가 퍼진 후, 천지간 미증유의 경천동지할 소리가 되었다. 일본 朝野는 大驚 했고, 사람들은 모두 심히 두려워했으며, 엄청난 재앙을 앞둔 듯했다. 세계 각 약소민족은 지사가 있으며, 모두 행동에 나서고 싶어 흥분했으며, 앞다투어 이 지사의 생명 안위를 걱정하는 위문 전보를 보냈다. 유럽과 북미 각국 역시 크게 주목했으며, 이 사건은 일본의 앞날에 있어 크게 주의를 가질 가치가 있는 일이라 여겼다. 듣건대 이 지사의 이번 거사는

기사 내용이 대부분은 통신사 기사를 정리한 것이고, 가치판단이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31)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157쪽.

32) 「韓國志士狙擊日皇未成」, 『申報』, 1932.1.0.

개인행동이 아니며, 극히 비밀스러운 사명으로 전 한민족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대표하며, 동지들이 계속해서 희생 임무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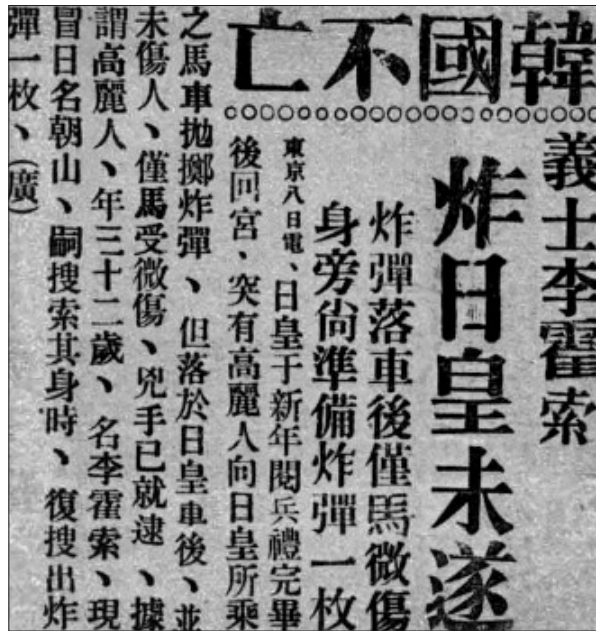
이 글은 사건의 경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각계의 반응’을 전한 글로, 현재 일본은 만주를 넘어 장성 이남으로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침략 정책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은 같은 편에 있음을 의미했다. 이봉창의 거사에 약소민족의 민족혁명 지사들이 자극받았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희생을 통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中央日報』는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후 창간된 국민당의 기관지였다. 위 기사 내용은 이봉창에 대한 국민정부의 인식을 반영하며, 주관적인 서술이 가능했던 것은 내용의 출처가 국민당이 만든 통신사인 中央社(中央通訊社)이었기 때문이다.

1932년 1월 9일 국민당 靑島市黨部 기관신문이었던 청도 『民國日報』는 이봉창을 지사를 넘어 義士로 칭하며, 관련 사실만 단신으로 보도했다.³⁴⁾ 이에 駐靑島 일본총영사 가와고에 시게루(川越茂)는 당일 바로

33) 「韓志士狙擊日皇后」, 『中央日報』 1932.1.11., 第1張 第4版. “此次日本使行侵略, 注意攻佔東北, 着着進兵入關, 藐視公里, 目然一世之際, 忽然霹靂一聲, 韓國志士李奉昌, 以單身雙彈, 狙擊日皇於萬軍護衛之中, 雖誤中副車, 未達其目的, 然此乃波浪推聲之後, 天地間第一未達驚人之音也. 日本朝野大爲震驚, 人人慄慄, 如將大禍臨頭, 世界各弱小民族有志士, 皆躍躍欲動, 欲步後塵, 紛紛來電慰問李志士性命口危. 歐美各國亦大爲注意, 以爲此事於日本前, 有極爲注意之價值, 聞李志士此舉, 非係個人行動, 而有極嚴密之使命, 及代表全韓民族獨立運動之先驅, 奮勵同志之繼續犧牲工作會云.”

34) 「韓國不亡, 義士李霍索, 炸日皇未遂」, 靑島 『民國日報』, 1932.1.9.; 任銀睦·柳賓等編著, 『日本侵華圖志』 第5卷(山東問題與濟南慘案 1914-1929), 山東畫報出版社, 2015, p.355. “炸彈落車後僅馬微傷, 身旁尙準備炸彈一枚. 東京八日, 日皇於新年閱兵禮完畢後回宮, 突有高麗人向日皇所乘之馬車拋擲炸彈, 但落於日皇車後, 并未傷人, 僅馬受微傷, 兇手已就逮, 據謂高麗人, 年三十二歲, 名李霍索, 現日名朝山, 嗣搜索其身時, 復搜出炸彈一枚.”

청도시 시정부에 공문을 보내 항의하였다. 기사 제목에 모욕적 함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신문사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부 내 의견이 분분했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민당 청도시당부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듯 했으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청도에 거주하는 일본 교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청도 『民國日報』사와 국민당 청도시당부 건물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다. 급기야 13일에는 청도시정부 건물을 포위하여 위협하면서 국민당 청도시당부 폐지, 청도 『民國日報』 폐간, 시장 沈鴻烈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틈타 駐靑島 일본영사관은 沈鴻烈에 청도시정부의 서면 사과, 신문사



〈「韓國不亡，義士李霍索，炸日皇未遂」，靑島『民國日報』(1932.1.9.)〉

의 공개 사과, 청도 『民國日報』 10일 정간, 유사 보도 재발 방지를 요구했

다. 沈鴻烈은 이를 수용하면서 일본측의 주모자 조사 및 처벌, 보상, 폭동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책임이 중국측에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문제 확대를 우려한 국민정부의 입장에 따라 심각한 외교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다.³⁵⁾

이붕창 관련 보도로 일어난 청도 『民國日報』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1931년 3월 7일 쇼와 천황의 황후인 고준 황후는 딸 이케다 아쓰코(池田厚子)를 출산했다. 당시 청도 『民國日報』는 「우습다! 일본인은 의식이 너무 없다. 황후가 여자아이를 낳은 일이 그토록 긴장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可笑! 日本人太無意識, 皇后生女, 那值得這樣緊張)」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다.³⁶⁾ 일본 황실은 출산 후 태어난 아이의 성별을 기적을 울려 알렸는데, 한 번 올리면 여자, 두 번 올리면 남자였다. 이케다는 쇼와 천황의 넷째 딸로 아직 아들을 낳은 적이 없었다. 첫 번째 기적이 올리고 일본 국민은 득남을 기원하며 긴장한 마음으로 두 번째 기적을 기다렸으나 기적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청도 『民國日報』의 기사 제목은 이러한 풍경을 풍자한 것이었다. 이에 駐青島 일본 총영사는 이러한 제목은 일본 국민의 황실에 대한 열성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청도시정부의 중재로 사과 보도를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고조된 반일감정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³⁷⁾

이붕창 사건 보도는 황실 구성원을 넘어 천황의 권위를 범한 불경죄였다. 北平의 『晨報』, 『世界日報』, 『The Peking Leader(北平導報)』, 天津의 『大公報』, 『益世報』, 漢口·青島·廈門·福州·汕頭 등 각지의 『民國日

35) 盛雷, 「“一·二八”事變爆發前夕的青島日僑暴動探析」, 『東嶽論叢』第33卷 第3期, 2012, p.82.

36) 「可笑! 日本人太無意識, 皇后生女, 那值得這樣緊張」, 青島 『民國日報』 1931.3.10.

37) 盛雷, 「1932年青島日僑一一二暴動研究」, 『抗日戰爭研究』, 2012-3, p.82.

報』가 『韓國獨立黨의宣言』을 전재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각 지방 당국에 사과와 폐간 요구를 했다.³⁸⁾ 주중 일본공사 重光葵는 1월 15일 중국 각지에서 불경스러운 기사가 나왔으며, 이는 일본 황실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본건에 관련된 각급 國民黨部와 배일 단체 등의 모든 불온책동을 엄중 금지시킴은 물론 본건을 이들 당부 및 단체 등의 永肆不法의 반일운동의 한 표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일언동을 절실하게 단속하여 불상사의 방지에 적절하고도 유효한 수단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³⁹⁾ 이에 국민정부 외교부장 陳友仁은 주관 부문을 통해 중국신문사가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일본의 각 신문 및 통신사도 때때로 우리나라 최고 당국을 모욕하고 또 사회 치안을 혼란케 하는 기사가 있으니 일본 각 신문사 통신사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단속해 주길”⁴⁰⁾ 바란다고 요구했다.

9.18만주사변 이후 중일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 당국과 중앙 정부는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본 천황과 황실 불경 보도에 대한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치하였다. 하지만 ‘불경’ 보도는 중국인의 이봉창 ‘의거’를 통해 일본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한 것이며, 만주를 빼앗겼음에도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었다. 일본의 강한 압박에 관련 보도는 시정되고 신문사는 사과했으며, 신문이 정간되거나 폐간됐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역시 적극적으로

38) 賀朗, 『蔡廷鍇淞滬血戰記』, 上海文藝出版社, 1991, p.49; 蔡銘澤, 『中國國民黨黨報歷史研究 1927-1949』, 團結出版社, 1998, pp.61-62; “Japanese Legation Demands English-Language “Peking Leader” Be Closed Down,” *The China Press*, 1932.1.27.; ““Peking Leader’s” Offence: Japanese Demand Closure of Paper, Editor’s Arrest,” *The North-China Daily News*, 1932.1.27.

3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한인애국단 I』, 국사편찬위원회, 2008, 134쪽.

4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8 한인애국단 I』, 150쪽.

보도되면서 중국인의 반일 감정을 더욱 자극하였으며, 반일 감정 속에서 일본 천황을 처단하고자 한 이봉창의 행위와 의도는 더욱 부각되었다.

IV. 지사 형상의 공고화

이봉창 '의거'로 인한 불경보도의 여파가 진정되기도 전에 1.28상해사변이 일어났다. 국민정부는 '일면교섭, 일면항전'의 방침으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군사 대응을 했으나, 3월에 이르러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외교적 해결에 집중했다. 4월 28일 중국과 일본은 정전협정 합의에 이르렀고, 다음날 일본군은 홍구공원에서 전승식 행사를 열었다. 여기서 홍구공원폭탄사건이 일어났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이봉창 사건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 양상을 본다면, 홍구공원폭탄사건 역시 유사한 양상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다. 윤봉길의 '폭탄'은 중일 간 정전협정 합의 직후라는 미묘한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겨우 봉합된 중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사건 직후 신문들은 志士라는 표현보다 凶手, 刺客이라는 명칭으로 윤봉길을 칭했다.

일부 잡지에는 이번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는 글도 실렸다. 5월 15일 발간된 『抗爭: 外交評論』에 武漢大學 법학원 교수 皮宗石의 「虹口公園炸彈事件」이 실렸다. 그는 韓人들이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암살은 비도덕적 행위이며, 도덕적 입장에서 홍구공원 폭발 사건을 비판할 수밖에 없으며, 폭탄을 투척한 이를 변호할 수 없고, 범죄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⁴¹⁾ 고 지적했다. 그 역시 윤봉길을 비롯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志士라 부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암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윤봉길 의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암살의 정당성 논쟁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사건 초기 의견이 분분했으나, 9.18만주사변과 1.28 상해사변을 거치며 중국 내 반일 감정은 매우 고조되어 있었다. 중국인들은 상해를 침공한 주모를 처단한 것에 대한 윤봉길을 이성적으로는 몰라도 감성적으로 동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마음을 움직인 것은 김구의 결단이었다. 김구는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봉길이 목에 선서문을 걸고 한 손에는 권총을 한 손에는 폭탄을 들고 태극기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영문 편지와 함께 상해에 있던 주요 신문사에 투고했다. 이를 받은 『申報』, 『時報』가 5월 9일 바로 사진과 서신 내용을 번역하여 게재했고, 이후 상해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신문들이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김구의 판단은 적중했다. 사건 직후 보도로 윤봉길에 붙여진 凶手, 刺客은 사라지고 지사 형상이 자리 잡았다.⁴²⁾

김구는 윤봉길 의거의 진상을 알리면서, 이봉창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李奉昌 사건의 상세한 설명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고 예고했다. 그 기회는 이봉창 재판이 동경에서 진행되면서 이루어졌다. 1932년 9월 28일, 이봉창에 대한 일본 대심원 판결이 있기 며칠 전 김구는 이봉창의 일황 저격 사건의 진상을 ‘東京炸案之真相’라는 글로 작성하였다. 그 원고를 측근인 嚴恒燮을 통해 중국어로 번역한 후, 10월 9일 상해에 있는 중국통신사

41) 石公, 「虹口公園炸彈事件」, 『抗爭: 外交評論』第1卷 第12期, 1932, p.12(「虹口公園 폭탄투척사건」, 『매현윤봉길전집』 3(중국신문잡지), 매현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 467쪽).

42) 손성욱, 「1930년대 중국에서의 윤봉길 이미지 변화 양상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172쪽.

에 보내 신문사 배포를 요청했다.⁴³⁾ 상해에 있는 10월 15일 『申江日報』는 「韓人愛國團團長金九宣布, 韓烈士李奉昌就義始末: 化名木下昌藏與日人混熟, 蓄謀年餘今年春始償宿願」라는 제목으로 전문을 전재했고, 『中央日報』는 원제인 「東京炸案之真相」이라는 제목으로 15, 16일 양일 걸쳐 전문을 보도했다.⁴⁴⁾ 10월 30일 나온 『民聲周報』도 『申江日報』와 동일한⁴⁵⁾ 제목으로 전문을 소개했다. 동호에 교육학자이자 ‘국가주의파’였던 周天冲은 「“사쿠라다문의 수류탄: 대한 壯士 이봉창을 추모하며 중국 청년을 고무하다」를 실어 이봉창을 애도하고, 중국 청년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하였다.⁴⁶⁾

‘東京炸案之真相’은 윤봉길의 진상을 밝힌 영문 편지에 비해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반일 감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봉창 사건 발생 직후 ‘불경’ 보도로 인한 일본의 강한 항의로 인해 많은 신문이 정간되거나 폐간되어 김구의 투고문을 전재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⁴⁷⁾ 여기에 신문으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봉길 진상 서신의 경우는 사건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

43)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166~167쪽.

44) 「韓人愛國團團長金九宣布, 韓烈士李奉昌就義始末: 化名木下昌藏與日人混熟, 蓄謀年餘今年春始償宿願」, 『申江日報』 1932.10.15 第3版; 「震動全世界, 東京炸案之真相: 韓人金九揮淚詳述經過, 文字生動令人可歌可泣」, 『中央日報』 1932.10.15., 第2張 第3版; 「震動全世界, 東京炸案之真相(續): 韓人金九揮淚詳述經過, 文字生動令人可歌可泣」, 『中央日報』 1932.10.16., 第2張 第3版.

45) 「韓人愛國團團長金九宣布, 韓烈士李奉昌就義始末: 化名木下昌藏與日人混熟, 蓄謀年餘今年春始償宿願」, 『民聲周報』 第38期, 1932, pp.15-18.

46) 周天冲은 「“櫻田門之一彈”: 悼大韓壯士李奉昌并勸中國青年」, 『民聲周報』 第38期, 1932, pp.3-6.

47) 남경 대동일보 보도 전문을 보도해 항의를 받았다. 「京大同日報, 登載韓人金九述李奉昌案事, 駐漢日領竟誣爲持論反日, 尙提抗議請加取締, 嗚呼! 輿論界何不幸歟!」, 『包頭日報』 1932.10.23., 第2版; 「韓人一席話, 引起糾紛」, 北京 『益世報』, 1932.10.22., 第2版.

왔고, 사건의 전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구의 투고는 뉴스로서 큰 가치를 지녔다. 하지만 이봉창의 경우 사건 발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내부의 은밀한 사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사들이 장편의 글을 그대로 보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봉창의 사형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입장이 일본 통신사의 소식을 통해 보도됐지만, 이것이 사건을 다루는 논조나 사건의 인식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9월 30일 이봉창이 일본 大審院에서 최종선고를 받았다. 이 소식은 중국에 전해졌고, 『時報』는 동경의 聯社電을 인용해 “피고인의 심정을 살펴보건대 현재 피고는 타인의 선동으로 대역사건을 일으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⁴⁸⁾ 고 보도했는데,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 들일만한 중국인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 보도는 이봉창의 지사 형상을 강화시켰다. 이봉창의 죽음을 애도하고 중국인의 자각을 요구하는 글이 잡지와 교육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 윤봉길의 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로 이어진 항일 암살활동은 ‘의거’로 인식되었다. 일본의 대중국 침략이 거세지면서 이들은 중국인의 志士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1932년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浙江省立民衆教育館의 주관으로 항주에서 國際現勢展覽會가 열렸다. 이번 전람회는 “현재 국제 정세를 소해하여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 취지이며, 이를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일깨우고자”⁴⁹⁾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최근 국제 정세에 중점을 두어 중국의 입장에서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⁵⁰⁾ 내

48) 『韓人李奉昌判處死刑』, 『時報』 1932.10.1., 第1張.

49) 金文恢 編校, 『國際現勢展覽會之經過及其內容(一九三三年一月)』, 浙江省立民衆教育館, 1933, p.1.

50) 金文恢 編校, 『國際現勢展覽會之經過及其內容(一九三三年一月)』, p.2.

용을 전시한다는 원칙하에 세계 각국 현황 조감, 각 열강의 상황, 중국과 각국의 관계, 각국 상호 관계와 중국, 세계경제공황과 중국, 중국 변경의 국제 관계, 국제연맹의 조직과 활동, 화교 문제, 최근 국제 사건, 약소민족 분투의 피자국 등 총 10개의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졌다. 조선이 포함된 약소민족 부분에서는 터키, 폴란드, 조선, 인도,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이 다루졌다. 전시는 각국의 규모를 비교하는 조감도와 모형이 전시되고, 세부 내용은 사진, 그림,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형세는 ‘조선의 반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서두에 기자조선부터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중국사의 맥락과 연관 지어 짧게 설명한 후⁵¹⁾, (1) 韓人 항일 第一聲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2) 일황 암살의 이봉창 (3) 폭탄을 터트려 白川 대장 등을 죽인 윤봉길 (4) 혁명 영수 안창호 (5) 최근 항일에서 살신성인한 이회영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의 사진이 전시되었다.⁵²⁾

이 전람회는 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했다. 휴관한 월요일을 제외하고 23일 동안 수만 명이 참관했다. 이렇게 한국 독립지사의 비합법적 항일 암살활동은 중국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주제로

51) 金文恢 編校, 『國際現勢展覽會之經過及其內容(一九三三年一月)』, p.468. “조선은 황해와 일본해 사이에 있는 반도국가로, 주나라 초기 기자가 이곳에 책봉을 받았고, 한나라 초기에는 위씨가 이를 계승했으며, 한무제가 이를 명했다. 그 남부에는 삼한 각국(고구려, 신라, 백제)이 있었고, 모두 한에 속했으며(속국이었으며), 오대 시기에는 왕건이 이를 계승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명초에는 이성계가 이를 계승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역대로 우리나라의 번속이었으며, 청 광서 20년에 내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도왔으며, 일본이 점차 간섭하여 중일전쟁이 일어나 그 결과 실패하여, 마관조약(시모노세키조약)을 맺었다. 조선은 독립하여 칭제를 시작하였고, 국호를 대한으로 했으며, 불행히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으며, 선통 2년, 민국 원년 8월 29일에 이르러 일본은 이를 합병하고, 총독을 세워 그 땅을 통치하였다.”

52) 金文恢 編校, 『國際現勢展覽會之經過及其內容(一九三三年一月)』, pp.464-468.

스토리텔링 되어 확산되어 갔다. 1934년 항주에서 발간되던 『黃鍾』 잡지 응모전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陳適은 수상작 「윤봉길 : 현대적 2막 역사극 (尹奉吉: 現代的兩幕史劇)」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말로 끝나 치며 “이 작품은 선전극의 성격을 취했다. 응모하기 위해 쓴 것 이외에, 뜻을 품고 선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작품을 바친다. 제2막은 모두 일본인의 입을 빌려 일본인의 야심이 커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하며, 적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성에 대항하여 국민이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분기하기를 바란다.”⁵³⁾ 라는 후기를 남겼다. 이와 같은 외침은 어린 소학생부터 시작해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V. 나가며

南京三民中學 校長이었던 熊沖(1893~1944)은 大華魂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은 특수한 정신이 있으며 제국주의 폭력이 확대되는 시기에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민족이 생존할 수 있으며 안중근의 손에 우주의 정의가 있다고 했다.⁵⁴⁾ 우주의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안중근과 이봉창을 높이 평가하고, 荊軻, 聶政 등 자객, 유협을 동정한다면서 도덕이 상실되고 無廉無恥의 사회에 이러한 任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이야기를 다룬 아동도서 『鐵漢』을 쓴 龔仲尊은 民族爭光의 안중근, 擲彈神手 윤봉길, 硬漢子 김구 이야기를 책에

53) 陳適, 「尹奉吉: 現代的兩幕史劇」, 『黃鍾』 第4卷 第6期, 1934.5.15., p.5.

54) 熊沖 講, 南京三民中學校友會 編, 『熊沖先生國難期中之教育言論』, 南京三民中學校友會, 1936. 80쪽.

넣었다.⁵⁵⁾ 1941년 三民主義青年團 中央團部가 청년단 교육을 위해 만든 교재인 『外國民族英雄史話』는 각국의 민족영웅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번째가 안중근이고 그 다음이 윤봉길이었다.⁵⁶⁾ 1930년대 초반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암살활동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여러 시각이 있었지만, 1931년 9.18만주사변으로 시작된 14년 동안의 중국 항일투쟁에서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은 일본 제국주의에 굴하지 않는 한국 독립정신을 보여주는 志士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중국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연결되며 양자의 공동항쟁을 추동하는 역사적 동력으로 역할을 하였다.

(2023.11.05. 투고 / 2023.12.11. 심사완료 / 2023.12.17. 게재확정)

55) 龔仲萼 編, 『鐵漢』, 南京書店, 1933, 51-72쪽.

56) 三民主義青年團中央團部編, 『外國民族英雄史話』, 三民主義青年團中央團部, 1941, 1-24쪽.

[Abstract]

From 'Assassination' to 'Patriotic Deed: An Examination of the Reporting on Ahn Jung-geun, Lee Bong-chang, and Yun Bong-gil in China during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Son, Sungwook

In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assassination' emerged as a pivotal tactic within Korea's anti-Japanese resistance. The activities of figures such as Ahn Joong-geun, Lee Bong-chang, and Yun Bong-gil notably resonated with the Chinese populace, effectively reshaping perception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these individuals have come to symbolize the spirit of collaborative anti-Japanese efforts. Nevertheless, the early 20th-century Sino-Korean relationship experienced various fluctuations, with China's percep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hifting in accordance with prevailing circumstances. Particularly, the interpretation of the 'unlawful' method of 'assassination' was intricate, its appraisal subject to Chin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Amid the intricate geopolitical changes of the early 20th century, the shaping of these figures' persona played an essential role, and during the 1930s, they became intertwined in the context of the Chinese anti-Japanese war, further strengthening the image of Korean heroes in the eyes of the Chinese.

□ Keyword

Assassination, Patriotic Deed, Patriot, Ahn Joong-geun, Lee Bong-chang,
and Yun Bong-gil

[참고문헌]

『時報』, 『晨報』, 『亞細亞日報』, 『國際公報』, 『大公報』, 『民吁日報』, 『申報』, 『神州日報』, 『新聞報』, 『正宗愛國報』, 『順天日報』, 『中外實報』, 『益世報』, 『中央日報』, 『申江日報』, 『包頭日報』
『東方雜誌』, 『輿論時事報圖畫』, 『民聲周報』, 『黃鍾』
The China Press, The North-China Daily News.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중국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매헌운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 『매헌운봉길전집』 3(중국신문잡지), 매헌운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

사마천 지음, 장세후 옮김, 『사기열전』 2, 연암서가, 2017.

천두슈, 『천두슈 사상 선집』, 산지니, 2017.

金文恢 編校, 『國際現勢展覽會之經過及其內容(一九三三年一月)』, 浙江省立民衆教育館, 1933.

徐明勳 主編, 『中國人心目中的安重根』, 黑龍江教育出版社, 2009.

任銀睦·柳賓 等 編著, 『日本侵華圖志』 第5卷(山東問題與濟南慘案 1914-1929), 山東畫報出版社, 2015.

張枬·王忍之 編, 『辛亥革命前十年間時論選集』 第2卷 下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3.

經盛鴻, 『民國暗殺要案』, 江蘇古籍出版社, 1996.

王培·金人, 『民國政治謀殺案』, 群眾出版社, 2004.

蔡銘澤, 『中國國民黨黨報歷史研究 1927-1949』, 團結出版社, 1998.

賀朗, 『蔡廷鍇淞滬血戰記』, 上海文藝出版社, 1991.

박혜진·박설매, 「중국에서 윤봉길 사건의 주제의식 변천 연구」, 『한국문학논총』 91, 2022.

손성욱, 「1930년대 중국에서의 윤봉길 이미지 변화 양상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2023.

손승희, 「萬寶山事件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 2007.

손영홍, 「안중근의거가 중국의 반제민족운동에 미친 영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4, 2009.

유용태, 「환호 속의警鐘 : 戰場 中國에서 본 러일전쟁」, 『역사교육』 90, 2004.

이명화, 「식민지 청년 김익상의 삶과 의열 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장세윤, 「20세기 초반 주요 중국 언론의 한국 독립운동 인식 - 홍콩 華字日報·天津 大公報·上海時報·申報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2013.

최봉룡, 「안중근 의거에 대한 중국인의 반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9, 2020.

한시준,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근현대사연구』 36, 2006.

金芳, 「伊藤博文在華形象初探(1880-1930)」, 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陶海洋, 「《東方雜誌》中“黃禍論”述評研究」, 『江蘇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6-3.

劉學照·方大倫, 「清末民初中國人對日觀的演變」, 『近代史研究』 1989-6.

- 盛雷, 「“一·二八”事變爆發前夕的青島日僑暴動探析」, 『東嶽論叢』第33卷 第3期, 2012.
- 盛雷, 「1932年青島日僑一一二暴動研究」, 『抗日戰爭研究』2012-3.
- 魏瑩, 「清末民初(1895-1916)暗殺風潮研究」, 陝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俞祖華·趙慧峰, 「略論近代中國人的日本觀」, 『廣東社會科學』2007-5.
- 張利芬, 「近代在華韓人的反日暗殺活動(1905-1945)」, 延安大學 석사학위논문, 2022.
- 韓小林, 「論近代中國從“輕日”到“師日”的轉變」, 『安徽史學』2004-3.
- 黃滔, 「晚清革命派暗殺風潮興起之原因初探」, 『探索與爭鳴』2013-6.

